

“구전돼 온 스승들 가르침 텍스트로”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
벨렐 린보체 지음
오기열 옮김
지영사 펴냄
3만원

티베트 불교와 그 수행법을 가장 잘 표현한 티베트 경전 중 하나인 《쑤상라메셀롱》이 번역돼 나왔다. ‘쑤상’은 ‘어떤 경우에도 선한’이란 뜻이고, ‘라메’는 ‘그 보다 높은 것이 없는’ 또는 ‘스승’의 뜻이며, ‘셀롱’은 ‘구전 가르침’이란 뜻이다.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의 부제는 ‘죽첸의 통첸닝티를 위한 예비수행지침서’다. ‘죽첸’은 인간의 원초적 절대적 본성을 말하는 것이고, ‘통첸닝티’는 죽첸을 위한 수행법을 말한다. 책 곳곳엔 ‘스승’에 대한 언급이 많다. 수행하는데 있어서 스승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티베트 불교에서 스승은 붓다와 같다.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은 벨렐 린보체가 스승 직매결와뉴구로부터 들은 가르침을 적은 것이다.

벨렐 린보체(1808~1887)는 티베트 동부의 유목민 마을인 자추카에서 태어났다. 초대 도솔천 린보체에 의해서 성취자 벨쌔삼뎨푼족의 환생자로 인정받았다. 그는 스승인 직매결와뉴구로부터 통첸닝티의 예비수행에 대한 가르침을 25년 받았다. 당대의 저명한 스승들은 본성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성취자로 벨렐 린보체를 기억하고 있다. 달라이라마는 책의 서문에서 “이 번에 한국어로 번역된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은 죽첸의 통첸닝티를 배우고자 하는 한국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책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자격을 갖춘 스승의 안내를 받아 올바른 수행을 해야 한다”고 했다.

책은 ‘1부 외적인 일반 예비수행’, ‘2부 내적인 특별한 예비수행’, ‘3부 신속한 길-포와’와 ‘가르침의 핵심요약’으로 구성돼 있다. 1부에서는 올바른 수행의 기회를 만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과 영원하지 않은 삶(無常), 윤회에 대한 사유, 수행의 실천, 해탈, 스승을 따르는 법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2부에서는 귀의, 발보리심, 장애를 뒤는 수행 방법, 공양, 깨달음의 지혜를 얻는 방법 등에 관한 가르침으로 좀 더 구체적인 수행을 이야기 하고 있다. 3부는 ‘깨달음’, 티베트 불교의 성불에 관한 이야기로, 죽음의 순간을 다스리기까지 ‘의식의 전이’로 설명하고, 그 의식의 전이와 성불에 대해 적고 있다.

티베트 불교는 대승의 교리와 밀교수행의 최종 단계를 계승한 것으로서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티베트의 성취자들은 현교와 밀교의 광범위한 경전을 핵심 위주로 압축 요약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 책은 그런 핵심적인 가르침을 하나하나 풀어 설명한 것으로, 현교와 밀교를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하는 안내서

티베트 스승들 가르침과 불교 소개
현교와 밀교 이어주는 가교 역할
스승 안내 받아야 올바른 수행

이다. 경전과 논서의 말씀과 종파를 초월한 성취자들의 가르침을 전하며, 속담과 고향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까지 인용하여 의미가 마음 속 깊이 와 닿을 수 있게 했다. 티베트 불교는 마음을 닦아서 열반에 이르게 하는 소승적 한계를 넘어 보리심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티베트 불교와 그 수행법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티베트 경전 중의 하나가 바로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이다.

불가(佛家)의 텍스트들은 대부분이 구전의 힘이 지켜낸 소중한 ‘가르침’들이다. 그 구전의 텍스트는 문자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으로, 문자의 모습을 한 당시의 살아있는 숨결인 것이다. 이번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 역시 구전의 힘이 간직해 놓은 텍스트임을 확인하는 것이며, 결국 하나의 스승으로 귀결되는 가르침을 확인할 수 있다.

박재원 기자 wanhollo@hyunbul.com

서재탐방 | 민희식 前한양대 불문학과 교수

“중도적 시선으로 서양사 서술하고파”

4월 16일, 오랜 시간 인문학과 종교에 대한 글을 써왔던 불문학자 민희식 교수(78)를 만나러 성북동을 찾았다. 봄빛은 따뜻했고 하늘은 맑았다. 봄꽃은 활짝 피었고 사람들의 웃자람도 가벼웠다. 멀리서 마주 나온 머리카락이 하얀 민 교수가 보였다. 그의 모습이 가까워질수록 맑고 밝은 표정의 얼굴이 또렷해졌다. 오랜 동안 책 읽고 사색하고 글 쓰고 강의하며 학자로서 살아온 삶이 고스란히 얼굴에 담겨 있었다.

민 교수의 서재는 2층에 있었다. 책만 쌓여 있는 방을 지나 들어선 서재에는 역시나 온통 책들이 즐비해 있었다. 한평생 번역과 저술에 매진해온 노교수의 서재는 책과 흔들리지 않던 타자가 전부였다.

민 교수가 소장하고 있는 책은 대전에 있는 서재까지 합쳐 8만여 권. 일어를 비롯 불어, 독일어 등 외국어로 된 책을 통해 그는 세상을 만난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객관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냉철하고 논리적인 학자라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 불교는 예외인 듯 보였다. 민 교수에게 불교는 신앙이었고 과학이었고 논리였다. 그래서 그는 성경마저도 범화경에서 가져왔다고 할 만큼 불교에 대한 자부심이 컸다.

“불문학도였으니 50년대 프랑스 유학을 가서 서구 문명을 접하게 됐어요. 저도 거기서 불문학 공부를 해야 했으니 성경을 읽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느낀 게 그쪽 사람들은 자국 문화에 자부심이 아주 크다는 거였어요. 그때 깨달았죠. 서양 것을 알기 전에 우리 것을 먼저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한국에 연락할 때도 우리나라 사정이 워낙 안 좋아 책을 구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담당 교수한테 어려움을 토로했더니 그곳의 국립도서관에 가서 찾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동양문화를 공부할 수 있었죠”

이후 그는 유네스코의 추천을 받아 한국 관련 책을 쓰게 된다. 당시 유네스코 측에서 참고서적으로 동양문고 총서를 건네주었는데 거기에는 중국 인도 등 동양 각국의 문화 철학 관련 서적 25권이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를 불교와 깊은 인연을 맺게 해주는 책 한 권을 만나게 된다. 바로 《범화경》을 만나게 된 것이다. 이것이 인연이 돼 그는 불문학자이자 종교학자로서 자리매김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범화경》이 너무 쉽고 재미있게 쓰여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 읽고 있던 성경보다 훨씬 더 내용이 좋고 재미있더라고요. 게다가 누가봐도 같은 거는 범화경의 내용을 그대로 베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지로 성경 그 자체가 불교 안에 다 있었어요. 깜짝 놀랐죠. 당시만 해도 서양문화가 너무나 우수하다고 생각했는데 범화경을 알고 나니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불경과 성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이후 그는 《범화경과 신약성서》 《성서의 뿌리》 《성경 속의 성상》 《천수경》 《예수와 붓다》 등 성경과 불경을 오가는 다양한 저서들을 펴낸다. 번역서도 다양하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에밀》 《프로이트 정신분석》 《보바리 부인》 《몰리에르 희곡선》 《마호메트 평전》 등 소설 희곡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저술해 왔다. 이렇게 다양한 저술활동을 해올 수 있었던 건 그의 왕성한 독서력에서 비롯됐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의 하루



민희식 교수는《범화경과 신약성서》《성서의 뿌리》《예수와 붓다》 등 불교 속에 성경의 내용이 있다는 저서를 여러권 펴내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그의 서재에는 8만여 권의 책이 있다.

프랑스 유학가서 ‘범화경’ 만나
“성경 자체가 불교 안에 다 있었다”
하루 세 권 씩 일 년에 천 권 독서

는 독서에서 시작해 독서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책 한 권을 읽고 아침식사 후 또 한 권 그리고 점심 후 한 권을 더 읽으면 하루 세 권의 독서가 된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일 이런 일상이 이어진다고 하니 일년이면 1천권 정도를 읽는다고 한다.

이런 그의 독서 습관은 일제시대 학교를 다녔던 초등 학교 2학년 시절의 싸움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는 일본 아이들이 주로 다니던 학교와 한국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가 나뉘어져 있었죠. 그렇게 일본 아이 대 우리나라 아이들이 편이 나뉘어져 싸움이 붙었는데 우리가 두발장사(지금의 태권도)로 한국 아이들이 이기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크게 돼서 학교에 알려지게 됐고 결국 선생님의 주도하에 양쪽 학생들이 화해를 하면서 일이 마무리 됐어요”

그렇게 해서 당시 반장이었던 민 교수는 일본인 학생들과 친구가 되었다. 그리고 그때 알게 된 한 일본인 친구의 집에 놀러 가게 되면서 책이라는 세계에 빠져 들어가게 된다. “그 집에는 어린이용 세계문학전집이 즐비해 있었어요. 책이 귀했던 시절이라 그걸 보니 너무 읽고 싶어지더라고요. 이 책을 좀 빌려 갈 수 없냐고 물었더니 친구네 집에 와서 책을 좀 읽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당시는 전쟁중이라 집집마다 다 여자를 밖에 집어 없었어요. 남자들은 다 전쟁터를 나갔으니 적적했던 거지. 그래서 매일 가서 2시간씩 또박또박 큰 소리로 책을 읽

어졌어요. 그렇게 몇 년을 하니 독서가 습관이 돼 버렸어요”

해방이 되고 중학생이 되어야 한글을 겨우 배웠다는 민 교수. 모국어를 잃어버린 나라에서 비록 일어로 된 일본인들의 책을 읽어야 했던 서글픈 현실이 서글프기도 했었으리라. 하지만 당시의 독서는 어린 민 교수의 세계관을 형성하는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장발장》 《투표》 등 불란서 문학이 너무나 재미있었던 그는 불문학을 전공하겠다는 꿈을 꾸게된다. 또한 《부처님 생애》 등 어린이용 불교경전을 통해 불교적 세계관을 갖게 된 것이다.

민 교수는 얼마전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책간에 저작권료를 기부했다. 일반책보다 제작비용이 훨씬 많은 점자책의 단가를 조금이라도 낮춰보고자 하는 마음에서다. 시각장애인들이 좀더 가볍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이자 보시다. 또 서양세계사를 서양인의 시선이 아닌 객관적인 시선으로 저술하고자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서양사가 너무나 서양인들 중심적으로 쓰여 있어서, 역사도 문화도 모두 양면성이 있는데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어요. 분명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는 거죠. 한쪽 시각으로 치우친 역사들을 바로 잡아 보고 싶어요”

팔순을 바라보는 그의 물리적 나이는 학문에 대한 열정 앞에서는 무색했다. 그는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독서를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갈 것이다.

글=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사진=박재원 기자 wanhollo@hyunbul.com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탄허록	탄허	휴
2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3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해민	생앤파크스
4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출판
5	원하고 행하니 이루어지더라	보경	불교시대사
6	친철한 간화선	월암	담엔북스
7	불교와 과학 진리를 논하다	사이토 나루야 외	윤주사
8	마음수학	이광성	휴
9	지혜가 있는 사람은 경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원산 외	불광출판사
10	당신은 행복한다	달라이 라마	문학이슈

※ 불서총편 윤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윤주사 (02) 3672-7181

“마음문제 해결엔 동서양 따로 없어”



“지난 십여 년 동안 기술은 엄청나게 빨리 발전해 왔으나 상대적으로 영적인 영역에서는 진전이 거의 없었다.” 책은 인간의 영적인 영역인 ‘마음’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책의 표지는 ‘마음에 이르는 서양과 동양의 길’이라고 적고 있다. 인류는 본래 가지고 태어난 ‘마음’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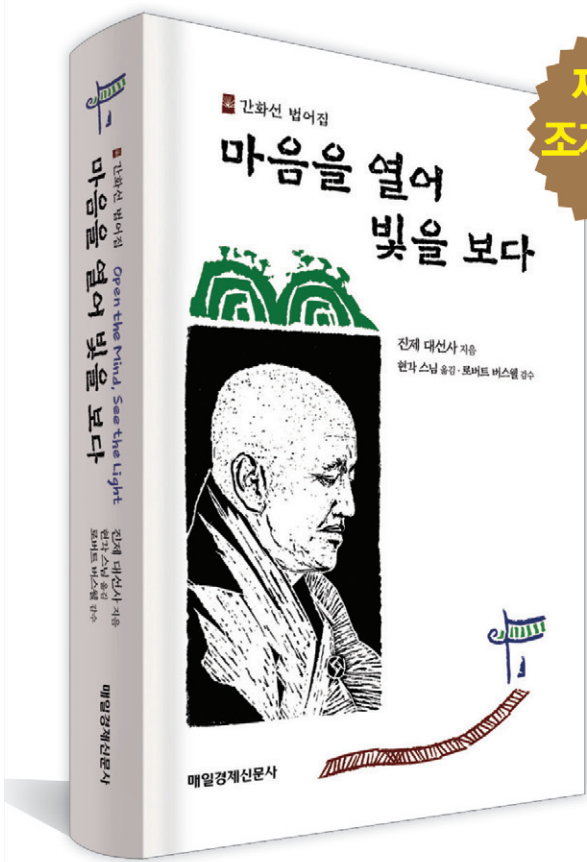
그 멀어진 마음의 문제를 저자 라드밀라 모카닌은 스위스의 심리학자인 융(1875~1961)의 심리학과 티베트 불교에서 찾고 있다. 동서양의 다른 시각에서 보는 정신세계의 원리와 작용 등을 기술하고,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논하며, 특히 양 체계를 조화롭게 연결시켜 상호 보완함으로써 인류의 정신세계를 한 단계 상승시키고자 했다.

용 심리학과 티베트불교의 진수 | 라드밀라 모카닌 지음 | 김수현 옮김 | 학지사 펴냄 | 1만5천원

박재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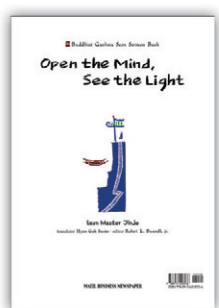
당대 최고의 선지식, 진제 대선사가 알려주는 마음의 고향에 이르는 수행법!

마음을 열어 빛을 보다



제 13대 조계종 종정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의 저자 현각 스님이 번역하고, 세계적인 불교석학 로버트 버스웰 교수가 감수하고 극찬한 참선법문집!



이 책의 편집 방식은 특별하다. 책의 앞면에서부터는 한글판이 시작되고 뒷면에서부터는 영문판이 시작된다. 전 세계인들은 진제 대선사의 참선 수행법과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으며, 한국독자들은 법문 공부와 동시에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 책에 실린 선사님의 가르침은 전통적인 것이지만, 그 응용에 있어서는 현대적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깨달음의 방법에 관한 선사님의 생각과 통찰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루이스 랭가스터 UCLA 명예교수

진제 대선사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유일한 법맥인 경허-해월-운봉-향곡 선사의 법을 이어받은 제 79대 법손으로 대 한불교조계종 종정.

진제 대선사 지음 | 현각 스님 옮김 | 로버트 버스웰 감수 | 신국판 변형 양장 436면 | 값 25,000원
Tel: 02)2000-2636 Fax: 02)2000-2609 www.mkbook.co.kr

진제 대선사 법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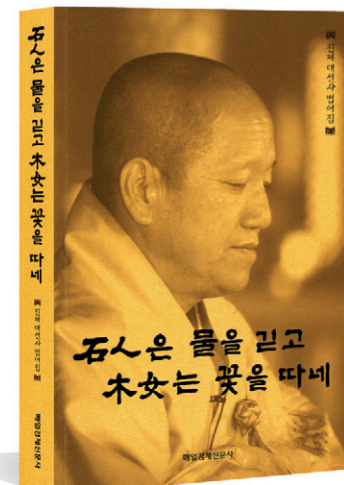
“영원한 행복을 위한 자기 성품계발서”
石人은 물을 길고
木女는 꽃을 따네

“진제 대종사가 이처럼 선봉을 휘날리지 아니했다면, 오늘의 대한불교조계종이 어찌 불조의 정맥을 이은 종단이라 할 수 있겠는가.”

- 종산 대종사 원로회의 의장

“구구절절 부모에게 이 몸 받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라고 화두를 참구하라 는 자비의 말씀이 귀를 때리고 마음을 울린다”

-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올바른 삶을 위한 국민 필독서!

‘참선’으로 지혜 계발하면 출세·성공은 따라오는 것!

진제 대선사 지음
신국판 348면 | 값 15,000원